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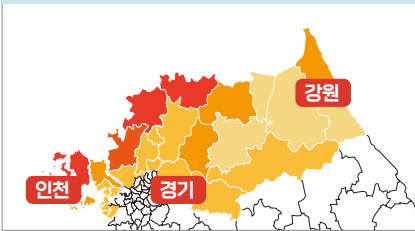
말라리아 위험지역 군부대에서 전역 시 알아야 할 5가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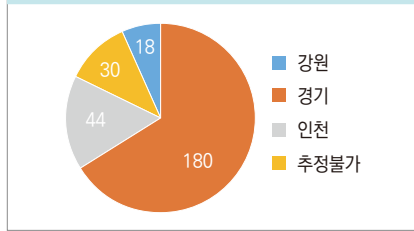
1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인천, 경기, 강원지역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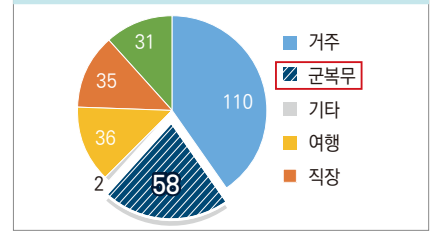
말라리아 위험지역



추정감염지역



추정감염경로



2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, 길게는 수년(보통 2년 이내)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이나 전역 후에도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합니다.

말라리아 임상증상

- 초기증상은 두통, 식욕부진, 오한,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림
- 48시간 주기로 오한, 고열,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



3 말라리아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, 간에 잠복했을지도 모르는 말라리아 원충을 제거하기 위해 14일 동안 프리마퀸 복용을 권장합니다.

- (군복무 중 예방화학요법) 클로로퀸 15주간 매주 1회 복용 후 프리마퀸 14일간 매일 1회 복용

4 전역 후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문진 말라리아 발생지역 근무 이력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.

검사 신속진단키트, 현미경검사, PCR(유전자 검출)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치료 말라리아는 처방받는 의약품을 용법·용량에 맞게 모두 복용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.

5 말라리아 환자라면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- 밝은 긴팔, 긴바지 입기
- 땀을 흘리면 샤워하기
- 방충망 점검하기
- 말라리아 매개모기 흡혈 시간(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에 외출 자제하기